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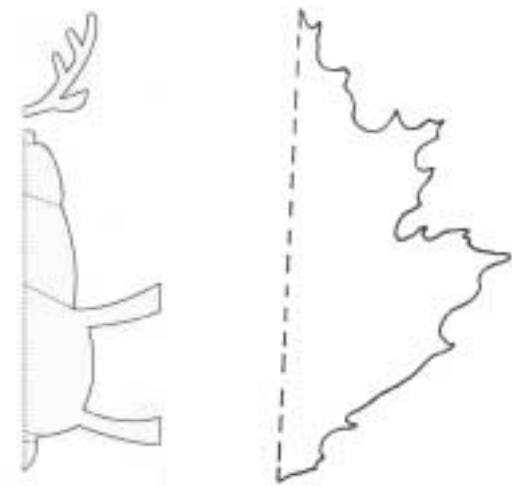
루돌프 리스

황누리

12월, 주일학교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탄제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바빠도, 매서운 겨울바람에 몸이 움츠러들어도, 곧 오실 아기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마음 한가득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는 일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탄 분위기가 나는 다양한 장식품을 이용해 주변 이곳저곳을 꾸미는 일입니다. 성탄 시기에 맞추어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 보면 알록달록 화려한 장식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장식품으로 성당을 꾸며 본다면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함께 리스(wreath)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리스는 화환 모양의 성탄 장식품으로 벽이나 출입문에 걸어 주변을 예쁘게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물
 굵은 철사, 얇은 철사, 가위, 펀치, 목공풀, 양면테이프, 셀로판테이프, 종이테이프, 지우개, 연필, 색종이, 리본 끈, 루돌프·나뭇잎 도안(디다케 홈페이지 'http://didache.eduseoul.or.kr'→ 자료방→디다케 자료방' 에서 도안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루돌프〉 〈나뭇잎〉

① 디다케 홈페이지에서 루돌프와 나뭇잎 도안을 내려받습니다.



② 초록색 계열의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나뭇잎 도안을 따라 그립니다.



③ 따라 그린 선을 가위로 오릅니다. 접었던 부분을 펴면 나뭇잎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 장의 나뭇잎을 만들어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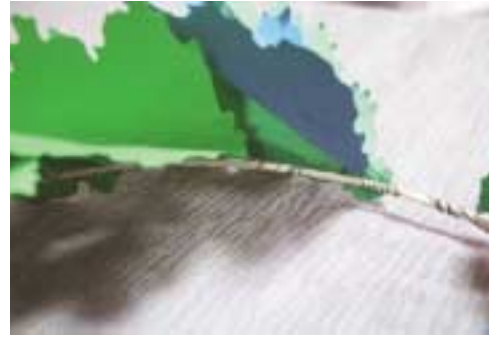
④ 펀치를 이용해 얇은 철사를 10cm 간격으로 자릅니다.



⑤ ③에서 만든 나뭇잎에 ④에서 자른 얇은 철사를 셀로판테이프로 붙입니다.



⑥ 40cm의 굵은 철사를 준비해 종이테이프로 감은 뒤, 사진처럼 둥글게 구부려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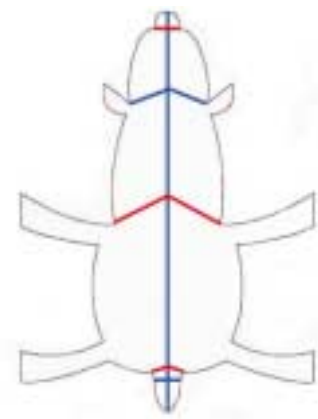
⑦ 나뭇잎을 붙인 얇은 철사를 ⑥에 하나씩 감습니다. 이때 얇은 철사를 끝까지 다 감는 것이 아니라, 2~3번만 감은 뒤 남은 부분은 펜치로 잘라 줍니다.(손을 다칠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⑧ 나뭇잎을 다 감은 모습



⑨ 나뭇잎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갈색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루돌프 도안을 따라 그린 후 가위로 오립니다.



⑩ 도안에 표시된 빨간 선은 안으로, 파란 선은 밖으로 접은 뒤 풀을 이용해 뿔을 붙이면 루돌프가 완성됩니다.



⑪ 완성된 루돌프를 ⑧에 붙입니다. 사진처럼 실을 이용해 매달아도 되고, 풀을 이용해 직접 나뭇잎에 붙여도 됩니다.



⑫ 리본 끈을 사진처럼 엑스자로 겹쳐 놓습니다.



⑬ 얇은 철사로 ⑫의 가운데 부분을 감아 리본 모양을 만듭니다.



⑭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리본을 작품 한가운데 붙입니다.



⑮ 루돌프 리스 완성!

황누리_엘리사벳
단국대학교 서양화과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서울대교구 목동 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에서 4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